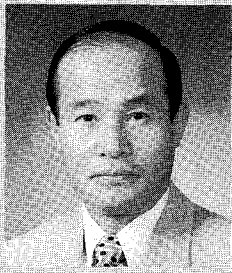


바이오 (Bio)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이학박사

휴대폰, 인터넷이 소개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정보화사회가 미래를 주도 할 것으로 주목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신정보기술(IT)을 이용한 벤처기업의 창업열풍을 몰고와 기술개발 전에 이미 주식시장을 통한 상승세 속에 개발자금 확보가 기대이상으로 이루어져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간, 자금 등 위험율이 높다는 것이 인식되고 부터는 분위기가 너무나 빨리 가라앉아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벤처기업이 관심을 갖게한 것이 바이오 바람이다.

이 바이오 바람은 벤처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고 이에 따라 바이오 벤처기업은 지난해말 118개사에서 6월말에는 138개사가 중소기업청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인증이 안된 기업까지 포함하면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수는 현재 300여개사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은 정보기술(IT)에 이어 생명기술(BT)이라는 인식아래 미국을 위시한 선진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정책 아래 생명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생명공학에 관심을 갖고 투자확대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생명공학 관련 기술육성계획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 대학연구소, 기업의 관심속에

바이오 바람은 모든 산업분야에 불고 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거품이 일게 마련이고 바람이 심하면 거품도 많이 일게 마련이다. 요즘에 바이오라는 말이 너무 쉽게 여기저기에 이용이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 : Bio 생물, 생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

회사명칭, 식품명칭, 아파트명칭, 주식명칭 등 어느 것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붙이는 명칭이 바이오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기술 벤처분야와 같이 생명기술 분야의 벤처도 벌써 식상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기분이다.

외국에서조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바이오주들의 열풍은 기술기준과 검증미비로 투자에 유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거품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국내 바이오 벤처업종중에 생물농업, 식품, 의약품분야에서 축산관련 분야가 빠르게 증가하고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축산분야에서 소개되는 부분을 보면 한계가 있는 검증과 성급한 제품소개로 인하여 바이오기술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다.

생명기술은 정보기술 보다 분야가 광범위하고 연구개발 기간이 길며 따라서 장기투자를 감당할 자금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기업이윤 측면에서 볼 때 개발의 의미가 없으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검증 아래에 세계시장을 진출할 수 있을 때 장기

“

최종 바이오

제품생산을 위하여

미생물을 축산현장에서 활용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생물
과의 관계, 생산기능에 미치는
영향, 공중위생상 취급수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

적으로 투자회수와 이윤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분야에서 바이오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확고한 기술개발 계획에 따른 단계별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생명기술의 개발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것보다는 기초연구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밑거름으로 하여 신기술이 탄생되는 것이므로 많은 작업과 인내를 요구한다.

또한 최종 바이오 제품생산을 위하여 미생물을 축산현장에서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생물과의 관계, 생산기능에 미치는 영향, 공중위생상 취급수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기관은 생명공학에 대한 기초 기술개발과 지원전략이 일관성 있게 장기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